

보도시점 (온라인) 2026. 9. 21.(월) 12:00
(지면) 2026. 9. 22.(화) 조 간

추석, 교통사고와 주택화재 조심하세요!

- 연휴 시작 전날 교통사고 평소의 1.4배, 오후 4~6시에 가장 많아
- 추석 연휴 주택화재, 음식 조리 중 자리비움 등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추석 연휴(9.24.~9.27.)를 앞두고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명절 음식 준비 중 발생하기 쉬운 주택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연휴 전날 오후, 서두르지 말고 안전운전

최근 5년(2021~2025년)간 추석 전후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연휴 시작 전날로, 평소(일평균 541건)의 약 1.4배인 평균 750건이었다.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오후 2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오후 4~6시에 평균 123건으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21~'25년) 추석 전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추석 연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평소보다 적지만, 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166명으로 평소(144명)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전 체 기 간 (최근 5년)			추 석 연 휴		
교통사고(건)	사상자(명)	100건당 사상자	교통사고(건)	사상자(명)	100건당 사상자
988,500	1,420,715	144명	11,510	19,084	166명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귀경·귀성길을 오가며 장거리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에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장거리 운행이 많은 추석에는 출발 전 엔진과 제동장치, 타이어 등 차량의 이상 유무를 미리 점검해 둔다.

차량에 탑승하면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고, 어린이는 체형에 맞는 안전의자(car seat)를 사용한다.

운전 시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평소 익숙하지 않은 도로에서는 더욱 주의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주변에서 지나친 대화 등으로 운전자를 산만하게 하지 않는다.

장시간 운전 등으로 피곤하거나 졸리면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간다.

특히, 명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이 평소보다 높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다.

※ 최근 5년('21~'25)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전체 기간 6.5%, 추석 연휴 8.7%

>> 명절 음식 조리 중에는 자리 비우지 않기

추석에는 명절 음식 준비로 가정에서 불을 끄는 일이 늘어 주택화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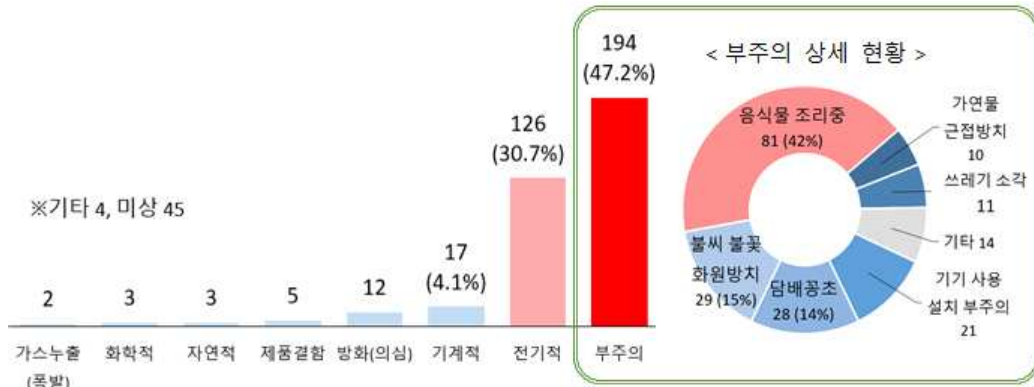
최근 5년('21~'25년)간 추석 연휴(전날, 당일, 다음날)에 발생한 화재는 총 1,122건이며, 이 중 주택화재 비율을 살펴보면 평소(최근 5년, 27.2%)보다 9.4%p 더 많이 발생하고, 특히 추석 당일에는 일평균 3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 분	전 체 기 간 (최근 5년)			추 석 연 휴 (전날, 당일, 다음날)		
		주 택 화 재			주 택 화 재	
화 재(건)	191,195	52,070	27.2%	1,122	411	36.6%

※ 주택화재 일평균(건): 최근 5년 28.5, 추석 연휴 (전날 28.6, **추석날 32.8**, 다음날 21.6)

원인별로는 음식물 조리중, 화원 방치 등 부주의가 194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126건(30.7%), 기계적 요인 17건(4.1%) 순이다.

< 최근 5년간('21~'25년) 추석 연휴 주택화재 원인별 현황 > (단위: 건, %)



[출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소방청]

추석 연휴에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불이 타기 쉬운 물건에 옮겨붙지 않도록 화구 주변을 정리하고,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기름 요리 중 조리유가 과열되어 불이 나면 가장 먼저 가스와 전원을 차단한다. 이때 물을 뿌리면 뜨거운 기름이 튀거나 물을 타고 흘러 불이 번질 수 있으니 절대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조리유 화재에는 일반적인 분말 소화기보다는 주방 전용인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열을 이용하는 주방용 전기제품은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제품을 함께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와 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하고 넉넉한 추석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총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책임자	과장	이치선 (044-205-4510)
		담당자	사무관	송정호 (044-205-4505)
담당 부서 <교통사고 통계>	한국도로교통공단 AI데이터전략처	책임자	처장	홍경식 (033-749-5260)
		담당자	과장	박해수 (033-749-5266)



안전한 한가위 보내세요

교통사고 예방



- ✓ 엔진, 제동장치 등 차량의 이상유무를 미리 점검하고,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공기압도 반드시 확인
-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철저 및 어린이는 체형에 맞는 카시트(car seat) 사용
- ✓ 운전 중에는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 ✓ 장시간, 장거리 운전 등으로 피곤하거나 졸리면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가까운 휴게소·졸음쉼터에서 휴식

주택화재 예방



- ✓ 음식을 조리할 때, 화구 주변 정리정돈을 잘하고, 불을 켜 놓은 채 잠이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
- ✓ 이동식 가스레인지 사용 시, 주변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종이행주, 포장비닐 등을 가까이 두지 않기
- ✓ 열을 내는 주방용 전기제품은 가급적 단독 콘센트 사용



즐거운 추석 교통사고와 화재 조심하세요!

교통사고 예방 수칙



- 장거리 운행 전, 차량의 이상 유무 사전 점검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및 어린이는 안전의자 사용



졸음쉼터

휴게소

- 운전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영상 등 시청 금지
- 피곤하거나 졸리면, 가까운 휴게소·졸음쉼터에서 휴식



- 음주운전 절대금지 및 교통법규 준수 철저

주택화재 예방 수칙



- 조리 전 화구 주변 정돈 및 위험 요소 사전 제거
-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



- 음식 조리중 불이 나면, 즉시 가스와 전기 차단
- 조리유 화재에 물 사용은 매우 위험,
주방 전용인 K급 소화기 사용 권장



- 열이 나는 주방용 전기제품은 가급적 단독 콘센트 사용